

시 읽는 법



이찬희 씬

이 찬 희

초등학교 때, 맛달았던 쫄면의 행각이 발각되자 수치심에 못 이겨 가출을 감행한 바 있다. 중학생 시절,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라는 노래를 <모모는 XX님, 모모는 XX끼...>라고 가사를 바꿔 부르다 데냐에도 벌을 볼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였다. 고교 시절, 한 소녀에 대한 짝사랑의 열병을 길게 앓고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부정한 시대에 맞서는 열정적 용기와 세계를 바라보는 냉철한 안목을 배웠다. 졸업 후, 한동안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세상을 깨우치다가, 뜻한 바 있어 상투적 일상을 버렸다. 그 후 언어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과 행복해지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르친다.

이 문서 파일의 무단 배포를 널리 권장합니다.

- 차례 -

- 시 이해의 출발점 3
- 마음의 세 갈래와 시의 구조 5
- 시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 12
- 시 해석의 실제 (1) 14
- 시 해석의 실제 (2) 22

시 이해의 출발점

이제 ‘시 읽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여러분들이 ‘시’를 대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해석과 이해의 출발점은 “시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 답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다.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막상 시 해석과 문제 풀이에서 이런 당연한 명제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뒤에서 구체적인 기출 작품을 들어 다시 언급할 것이다.)

비문학은 주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필자 자신의 견해까지 덧붙여서 전달하는 글도 있다.

‘사실’이나 ‘현상’은 객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그 ‘사실’이나 ‘현상’이 ‘나’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나’ 바깥에, ‘나’와 독립되어,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체로 객관적이고 명징하고(분명하고) 냉정한, 논리적 언어를 사용한다. (* 이 점은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가 덧붙여 있는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 비문학은 객관적이고 명징하고 냉정한, 논리적 언어, 곧 ‘사전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글쓴이와 다른 모든 사람이 함께 분명하게 공유하는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다르다.

시는 시인 자신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이 ‘마음’이란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 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태도, 인식 비스무리(?)한 것’이란 의미다. ‘비스무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란 게 주관적이고, 흐릿하고, 말랑말랑하고, 논리적으로



로 명확하게 밝힐 수 없고, 섬세하면서, 뭐라 분명하기 표현하기 어려운, 모호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에서는 비문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는 제 멋대로 ‘언어’를 비틀어 바꾸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 속의 꿈틀거리는 감동을 벗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무덤덤하게 나를 대하는 연인에게 몽실몽실 피어 오르는 내 마음을 보여주고자 할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떠오르는 해 혹은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문득 얻게 된 내면의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느끼는 그 마음’에 딱 들어맞는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절망감은 이런 것이다. 언어를 통해 과연 내 마음의 진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언어란 때면 내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마음 속 진실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근사하게 말하자면, 시의 언어는 ‘언어에 대한 절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시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언어’의 한계를 돌파하여, ‘마음’ 그 자체, 곧 ‘진실의 핵심’을 꿰뚫고자 하는 시도이다. 비유, 상징, 역설, 객관적 상관물 등의 여러 표현 방법도 결국, 언어의 한계를 언어를 통해 극복하면서 ‘시적 진실’에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다시!

왜 시는 언뜻 보기에는 주관적이고, 모호하고, 분명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마음의 표현’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음 그 자체가 객관적, 논리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겁먹지 말라. 어렵지 않다.

시인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시를 읽는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접근하려 할 때, 우리는 ‘공감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아,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 이런 <마음>이겠구나...”라고 상상하고 추론하면 된다. 그런 ‘공감’의 태도, 약간의 상상력, 약간의 추론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인이 그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어지는 글에서 이 애매모호한 ‘마음의 정체’를 약간 더 파헤쳐 보기로 하자.



마음의 세 갈래와 시의 구조

다음 시를 감상해 보자.

(가)

니 옷깃에 묻은 립스틱들 나는 절대로 용서 못 해.
매일 하루에 수십 번 꺼져있는 핸드폰,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oh oh

그저 친구라는 수많은 여자친구,
날 똑같이 생각하지 마 I won't let it ride
이제 니 맘대로 해 난 미련은 버릴래.
한때 정말 사랑했는데 oh oh

가끔씩 술에 취해 전할 걸어 지금은 새벽 다섯시 반,
넌 또 다른 여자애 이름을 불러 no no

I don't care 그만할래 니가 어디에서 뭘 하던
이제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마.
cause I don't care e e e e e
I don't care e e e e e

- Teddy 작사, 2NE1 노래, 『I don't care』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시를 낭독해주겠다.”라고 하고, 이 노래의 가사를 낭독하면 학생들은 마구 웃는다. 학생들의 인식 속에는 ‘시’가 대중가요의 가사와는 뭔가 다른 게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시가 별거냐? 이런 게 ‘시’이다.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도 어렵게 느끼지 않으면서, 막상 시험지에 글자로 박혀 있으면 겁부터 집어먹는다.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자,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I don't care』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인가? 복잡하게 어려운 표현 쓰지 말고 쉽고 간단하게 말해 보라.

용서 못 하겠다! 미련 없이 그만두자! 이젠 정말 상관 안 하겠다! I don't care 다!

말하자면, <분노 게이지 급상승의 마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헤어지자는 마



음>, <분노와 결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이렇다.

- 옷깃에 립스틱을 묻혀 왔다.
- 핸드폰 꺼져 있는 일이 너무 잦다.
- 날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취급한다.
- 술 처먹고, 새벽에 전화해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러댄다.

한마디로, <남자 친구의 배신> 때문이다. (※술 처먹고, 딴 여자 이름 불러대는 건 진짜 너무했다. 나 같아도 죽여 버리고 싶겠다. 남학생들은 조심하러! 여자는 무서운 존재다. 제 명예 못 죽는 수가 있다.)

여기서 잠깐, 시인과 화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나는 이 시의 작사가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가, ‘Teddy’라는 예명을 지닌 남자라는 것을 학생들로부터 듣고 속으로 좀 놀랐다. ‘2NE1’이라는 네 명의 계집애들은 알고 있었고, 또 왠지 정감이 가는 애들이기도 했는데(개인적으로 나는 요즘 때 지어 다니는 소위 ‘걸그룹’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쪽쪽뽕뽕한 애들이 패거리로 다니니까 친근감이 들지 않는다.), 이 노래 가사의 내용으로 보건대 10대 후반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짐작했던 터였다. 남자가 이런 가사를 쓰다니! 그 놈 참 감수성이 뛰어난 놈일세. (혹시 동성애자 아냐?)

화자는 원칙적으로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서정적 자아)’이다. 대체로 시인과 화자는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자 흥내내기 좋아하는 ‘김소월’, ‘김영랑’이 대표적이다. 혹시 게이?) 즉,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허구적 대리인인 <시적 화자>를 내세워서 표현한다.

아무튼, 『I don't care』는 젊은 여성 화자인 <나>가 <남자 친구의 배신>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와 결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이다.

즉, <시적 화자>는 어떤 <시적 상황>에서 어떤 <마음=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I don't care』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구조화할 수 있겠다.

- [화자] 나
- [상황] 남친 배신
- [정서] 용서 못 해! I don't care 야.



이제, 다음 시를 감상해 보자.

(나)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도 늘 한 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 이원수, 『겨울나무』

이 노래는 ‘동요’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노래다. 요즘도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 (학교 교육 문제 많다! 이런 감동적인, 평생의 기억에 남을 노래를 제대로 안 가르치다니...)

자,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겨울나무』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앞의 『I don't care』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왜 그럴까?

이 시는 『I don't care』와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용서 못 하겠다! 미련 없이 그만 두자! 이제 정말 상관 안 하겠다! I don't care 다!>와 같이 화자의 마음이 직접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즉, ‘나’가 표면에 없고, 배후에 숨겨져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래도 이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의 제목인 ‘겨울나무’는 숨겨져 있는 <화자>(이 때 화자는 시인과 동일시 될 수 있다.)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다. <화자>(숨겨진 ‘나’)가 ‘겨울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겨울나무’가 눈 쌓인 응달, 추운 겨울에 외롭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그 ‘겨울나무’는 넓은 세상 얘기를 듣고, 꽃 피던 봄, 여름을 생각하면서 휘파람만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비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나무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나무는 세상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봄-여름



따위를 생각할 수 있을 리도 없다. 나무는 휘파람을 불 수도 없다. 그냥 바람이 불어 공기 마찰에 의해 소리가 날 뿐이다. 그런데 <화자>는 나무가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것처럼, 봄-여름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것처럼 **추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겨울나무』에서 <시적 화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적 대상>의 상황을 통해 <화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곧, <‘겨울나무’가, 추운 겨울-눈 쌓인 응달 속에서, 꽃피던 봄-여름을 생각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 자신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면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겨울나무』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또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한 약간의 추론으로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상] 겨울나무

[상황] 눈, 응달, 추운 겨울, 외로이 서 있음. → (고난/시련)

[정서] 넓은 세상, 꽃피던 봄-여름 생각,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 (희망을 꿈꾸며, 의연한 태도 보임)

⇒ **나도 고난/시련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면서 의연한 삶을 살아야지.
or 바람직한 삶이란 고난/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의연한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를 감상해 보자.

(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귀도 얼룩 귀, 엄마 닮았네.

- 박목월, 『송아지』

이 노래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부를 법한 ‘동요’다. 유치하기 짝이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



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명곡이다.

자,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송아지』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인가?

이 노래의 ‘화자’일 법한 5~6세 정도의 유치한 마음으로 봐야 한다. 그런 아이가 살아있는 얼룩 송아지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그 송아지 곁에 있는 엄마 젖소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라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으아~ 송아지닷! 근데 얼룩이네... 어, 근데 엄마소도 얼룩이네... 아하! 아기는 엄마랑 서로 닮는구나!”

아이의 입장에서 이걸 아주 놀라운 발견이다. 5~6년 평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삶의 깨달음인지도 모른다.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송아지』에서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 마음은 “아하~, 아기와 엄마는 서로 닮는 것이로구나!”라는 **인식** 또는 **깨달음**이다.

[대상] 송아지, 엄마소
[정서] 아하, 아기와 엄마는 서로 닮는 것이로구나!

■ 마음의 세 갈래 - 감정, 태도, 인식

우리가 살펴본 위 세 개의 시 작품들은 시에서 표현되는 “**화자의 마음**”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 용서 못 해 ! I don't care 야!
 ⇨ 이런 마음을 <감정>이라고 한다.

(나) 넓은 세상, 꽃피던 봄-여름 생각,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나도 고난/시련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면서 의연한 삶을 살아야지.)
 ⇨ 이런 마음을 <태도 또는 자세>이라고 한다.

(다) 아하, 아기와 엄마는 서로 닮는 것이로구나!
 ⇨ 이런 마음을 <인식 또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 <감정>, <태도/자세>, <인식/깨달음>은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세 갈래이다.
- 이런 세 가지 갈래의 마음을 통칭하여 품 나게 <정서>라고 말한다. 곧 <마음=정서>이다. (<정서>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엄밀하게 말하면, 감정-태도-인식은 두부 자르듯 정확히 잘라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마음은 사실상 한 덩어리이다. 우리는 그 한 덩어리 마음에서 부각되는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그것을 각각 ‘감정, 태도, 인식’으로 나눠서 지칭하는 것이다. 가령, “용서 못 해! I don’t care야!”라는 감정은 “미련 없이 그만 두겠다.”는 태도와 한 덩어리의 마음이다. 또 “아하, 아기와 엄마는 서로 닮는 것이로구나!”라는 인식/깨달음 속에는 “아하!”라는 경탄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 정서(마음)을 <감정>으로 협소하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정서(마음)의 70~80%쯤을 차지하는 비중을 지닌 것은 맞지만, <태도/자세>도 정서(마음)이고, <인식/깨달음>도 정서(마음)에 속하는 것이다.

- 정서(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시는 없다. 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곧 시의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화자의 마음’을 파악해내는 것을 말한다.
- 모든 시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자세>나, <인식/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 이외의 다른 것을 표현하는 시는 없다.

■ 시의 구조

또, 위 세 개의 시 작품은 시가 지니고 있는 전형적 구조를 각각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시는 크게 이 세 가지 유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유형1] 시적 화자 - 시적 상황 - 정서

→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 [유형2] 시적 화자 -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 정서

→ 시적 화자가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시적 대상은 어떤 상황



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해 시적 화자는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 (나)의 경우에 해당한다.

▪ [유형3] 시적 화자 - 시적 대상 - 정서(개성적 인식)

→ 시적 화자는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개성적 인식/깨달음을 보이고 있다.

다음 이어질 글에서는, 이런 화자의 정서(마음)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시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 (제목-반복-감정-서술부)

하나의 시 작품 안에는 여러 시어, 구절들이 있다. 이 모든 시어들, 시 구절이 다 동등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중요한 시어, 구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글자들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글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글자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이어서 한 번 쓰옥 보고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시험지 위에 박혀 있는 글자들에게 제각각의 가치, 중요성을 부여하고, 글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시를 읽을 때도 그러하다. 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때도 중심에 두어야 할 시어와 구절 즉, <뼈대>가 있는 것이다. 비문학 지문에서도 전체의 뼈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덩이(세부 내용)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대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시에서도 전체의 뼈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시어들이나 구절에 집착하게 되면 시 작품을 제대로 읽어 이해해내기 어렵다.

시의 뼈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어 주는 시어나 구절들에 주목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시어/구절에 주목하여 시의 핵심 내용(= 주제 = 화자의 마음 = 화자의 정서)을 파악한다. 여러 시어들 중에서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은 일단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

1. [제목]에 주목하라.

- 제목에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압축적으로 담아놓는 경우가 많다.

2. [반복]에 주목하라

- 시 내용 중 반복되는 시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반복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
- 특히 수미상관의 경우, 앞뒤에서 반복되는 그 부분이 바로 주제에 해당한다.

3. [감정 또는 태도를 뚜렷이 드러내는 시어]에 주목하라.

- ‘외롭다, 그리다, 슬프다, 눈물, 눈시울이 뜨겁다’ 따위의 표현이 있다면 중요하다. (왜? 시는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80%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 ‘-리라, -겠다. -소서’ 등의 태도를 직접 드러내는 부분도 중요하다.

4. [서술부]에 주목하라.

- 위 1, 2, 3의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시들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서술어 부분’에 주목하여, 화자의 마음을 파악해가야 한다.



앞서 예를 들었던 2NE1의 『I don't care』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시어나 구절은 다음과 같다.

1. **제목** : I don't care (이게 주제다)
2. **반복** : I don't care
3. **감정/태도** : 용서 못해, 미련은 버릴래,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그래서, 이 노래의 주제, 곧 화자의 정서는 <용서 못 하겠다! 미련 없이 그만 두자! 이젠 정말 상관 안 하겠다! I don't care다!>라는 마음이 된다. 다시 말해, <분노 게이지 급상승의 마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헤어지자는 마음>, <분노와 결별>의 감정이 주제이고, 그 이유는 <남친의 배신>이었다.

이원수의 『겨울나무』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시어나 구절은 다음과 같다.

1. **제목** : 겨울나무 ('겨울나무'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 **반복** :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3. **감정/태도** : 외로이 서서,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노래의 주제, 곧 화자의 정서는 “겨울나무는 외로이 서 있지만, 봄-여름을 생각하면서 휘파람을 분다.” 즉, <겨울나무는 시련/고난 속에서 외롭지만, 희망을 꿈꾸면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 <‘나’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면서, 의연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태도이다. ‘겨울나무’를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이런 식으로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를 드러내는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하여서 이를 기반으로 ‘화자의 마음’을 이끌어내면 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시 해석을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는 이렇게 주목해야 할 핵심을 가려내지 못하고, 온갖 잡다구리한 살덩이에 파묻혀 허우적대느라 <전체의 뼈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세세한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된다. 세세한 것들의 의미나, 표현상의 특징 따위는 문제를 풀면서 선지를 접할 때, 지문의 그 부분을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볼 수 있다.

이어질 글에서는 위 설명한 방법을, 기출에서 출제된 바 있던 주요 시 작품에 실제로 적용하여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자.



[제목-반복-감정-서술부] 방법을 적용한 시 해석의 실제 (1)

시를 해석하는 과정이 복잡해서는 안 된다. 실전에서 복잡한 건 도움이 안 된다. 가능하면, 간단할수록 좋다.

여러분이 시를 해석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딱 이것들이다.

-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시에서 '화자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한다.
-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제쳐둔다.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이미 출제된 바 있는 기출 시를 해석해 보자.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너지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함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위 시에서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괴로움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반복 &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수미상관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제목

- 조지훈, 『승무』

밑줄 친 부분만 주목하여서 생각을 전개해 보자.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다 제쳐두라고 했다.)
 이탤릭체로 써 놓은 것이 위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네가 스스로 해야 할 생각이다.

⇒ 이 시는 화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

- 제목 : '승무'
 → 이 시는 승무를 보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을 거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
-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나빌레라'가 무슨 뜻일까? 나부끼는구나? 나비로구나? 잘 모르겠다. 하여간 '승무를 보니 참 곱구나'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고와서 서러워라’
→ 그냥 고운 게 아니라, 서럽다? 고운데 왜 서럽다고 하는 거지?
-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
→ 고운 여승의 승무는, 눈물과 번뇌를 별빛으로 승화시키려는 거룩한 행위인 듯. 아, 그래서 ‘곱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로군!

⇒ **[정리]** 화자는 승무를 구경하면서, “고와서 서러워라”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서러워라’라고 한 이유는, 승무에서 ‘인간적 슬픔, 고뇌를 (불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거룩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번뇌는 별빛이라”라는 구절을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화자의 마음’이 “고와서 서러워라”임을 간파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별 것 없다! 잡다구리한 것들은 일단 좀 무시하고,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면, 누구든지 이 시의 핵심 내용(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 곧 주제)을 파악해 낼 수 있다.

다음 시로 넘어가 보자.

(나)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위 시에서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면 다음과 같다.

(나)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밑줄 친 부분만 주목하여서 생각을 전개해 보자.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다 제쳐두라고 했다.)
이탤릭체로 써 놓은 것이 위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네가 스스로 해야 할 생각이다.

⇒ 이 시는 화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



- 제목 : ‘고고(孤高)’
→ 이 시는 ‘고고함’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을 거다. 고고함이 어떤 것일까? 보통 사람과 달리 ‘혼자서 높이 있는 것’...
 -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3번이나 반복되네. 그러니까 이 시는 ‘기다려야만 한다’ = 기다림의 태도를 표현하는 거라 할 수 있을 것. 그런데 뭘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 아, ‘고고한 것’은 ‘높은 것’인데, 그런 고고함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 ⇒ **[정리]** 화자는 ‘눈이 살짝 내린 북한산’의 모습에 빚대어서, ‘고고함이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고고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 또는 <고고함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쉽다!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해서 읽고, 이를 중심으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라는 눈으로 조금만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파악해낼 수 있다. 학생들이 시를 읽어도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시어, 구절들을 머릿속에서 무질서하게 뒤섞어 놓은 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이다.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 마음은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담겨 있다.

- ☞ 김종길, 『고고(孤高)』에서 <고고함에 해당하는 것>과 <고고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자.
- 북한산의 높이 = 고고함 ○
 - 높은 봉우리들이 열은 화장하듯 가볍게 눈을 쓴 모습 = 고고함 ○
 - 차가운 수목 = 고고함 ○
 - 신록, 단풍, 안개, 적설 = 고고함 × (* 이런 것들로는 ‘북한산의 높이=고고함’이 안 드러나니까)
 - 장밋빛 햇살 = 고고함 × (* ‘고고한 높이’를 변질시켜 버리니까)

이제 다음 세 번째 시에 <시 읽는 법>을 적용해 보자.

(다)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염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 사소 :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위 시에서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면 다음과 같다.

(다)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염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여러 번 반복 & 태도 표현

제목

[원주(原註)] * 사소 :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밑줄 친 부분만 주목하여서 생각을 전개해 보자.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다 제쳐두라고 했다.)
이탤릭체로 써 놓은 것이 위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네가 스스로 해야 할 생각이다.

⇒ 이 시는 화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

- 제목 :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 사소 단장? 아, 원주를 보니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이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사소가, 꽃밭에서 혼자 독백’하면서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이로군. (‘단장’은 뭘지 모르겠다. 무시하자.)
- ‘문 열어라 꽃아’
 → 여러 번 반복하네. 아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군. 꽃에게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강한 소망을 표현하는 거로군. 왜?
- ‘개벽하는 꽃아’,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 앞에 기대섰을 뿐’
 → 꽃은 개벽하는데, ‘나’(사소)는 어린애처럼 닫힌 문 앞에 기대 서 있다? 그러니까 꽃은 벽을 여는데, ‘나’(사소)는 닫힌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뜻이군. 결국, 화자인 사소는 문을 열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군.

⇒ **[정리1]** 화자인 사소는 꽃밭에서 꽃을 향해 독백하고 있다. 사소는 지금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열어젖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강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정리2]**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이고 ‘처녀의 몸으로 박혁거세를 잉태한, 마리아와 같은, 특별한 존재’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소가 열망하는 ‘새로운 세계’는 ‘원시적인 상태(닫힌 문에서 벗어난 새로운 나라-새로운 문명(문 열린 세상, 개벽)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좀 더 구체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은 아주 추상적인 뜻(‘상징성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을 지니고 있어, 해석하기에 매우 어려운 축에 속한다. 언뜻 어렵게 느껴진다고 쫓지 마라.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개의 시 작품을 해석해 온 방법과 마찬가지로, 무시할 것은 일단 좀 무시하고 주목해야 할 것에 제대로 주목하면, 시 해석의 실마리를 잡아낼 수 있고, 이 실마리를 가지고 전체 시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시의 주제는 <문 열어라, 꽃아>이다. 이 <문 열어라, 꽃아>가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는 <개벽하는 꽃아,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 앞에 기대섰을 뿐>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강한 소망>으로 이해할 수 있고, 화자인 사소가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이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존재’>라는 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새로운 문명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다음 시 구절은 어떤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 <노래, 말, 산돼지, 산새> 들은 모두 <한때 좋았던 것>이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현실>을 함축한다.

- 물뿔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 헤엄쳐서 물을 건너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 곧 <새로운 세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어찌할 바 모르는 화자 자신>을 뜻한다.

이상과 같이 세 개의 시 작품을 통해 시를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었다. 결론은 이렇다.

-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시에서 '화자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한다.
-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제쳐둔다.

별 것 없다. '독해 원리'라는 것은 그 자체는 별 것이 없는, 원칙적 명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별 것 없어 보이는 단순한 방법을, 시험지 위에 있는 구체적인 개별 작품에 적용해내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작품과 동떨어져 있는 원리는 '죽은 원리'에 불과하다. 이를 살아 있는 원리, 곧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원리'를 여러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해 보려는 훈련 과정(이 훈련은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곧 체득을 통해 내면화해가는 과정을 밟아 가야 한다.



[제목-반복-감정-서술부] 방법을 적용한 시 해석의 실제 (2)

(가)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위 시에서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서술부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서 생각을 전개해 보자.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다 제쳐두라고 했다.)
 이탤릭체로 써 놓은 것이 위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네가 스스로 해야 할 생각이다.

- ⇒ 이 시는 화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
- 제목 : '나뭇잎 하나'
 →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로군. 어떤 마음일까?
 - '몰랐었다' → '느끼지 못했었다'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 '보여 주면서'
 → 특별한 반복도 없고, 감정-태도 표현도 없다. 그렇다면, 서술부에 주목해야지.
 → 몰랐다.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나뭇잎 떨어지는 걸 보면서 드디어 알았다는 것. 뭘 알았다는 거지? 그게 중요하겠군!
 -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 살고, 한 개씩 떨어져 사라지는 것'
 → 태어날 때는 혼자, 살아갈 때는 여럿, 죽을 때는 또 혼자. 이걸 나뭇잎을 통해 '인간' 이나 '생명체 전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로군. 곧 '생성-번성-소멸해 가는 인간의 운명 또는 생명의 섭리'를 알았다는 것!
- ⇒ [정리] 화자는 나뭇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성-번성-소멸해 가는 인간의 운명 또는 생명의 섭리>에 대한 인식/깨달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위 시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자세>를 표현하는 시가 아니라, <화자의 인식/깨달음>을 표현하는 시이다. (※ 5~11 쪽에서 설명했던 『마음의 세 갈래과 시의 구조』를 보라)

이런 유형의 시를 학생들은 어려워한다. 왜냐면 대개의 시들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자세>를 표현하는 시이고, <화자의 인식/깨달음>을 표현하는 시는 드물어서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시는 딱히 ‘반복’도 눈에 띄는 것이 없고, ‘감정/태도 표현’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서술부’에 주목하여 시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이 시의 핵심 내용은 “몰랐다. 몰랐다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알았다.(보여주었다.)”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뭘 알았는데?” 그 질문이 중요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 “태어날 때는 혼자서, 한창 살아갈 때는 여럿이 어울려서, 저 세상으로 갈 때는 또 혼자서...” 즉, <생성, 번성, 소멸의 섭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깨달음>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이다.

이게 ‘그냥 나뭇잎 하나 그 자체’를 표현하는 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사물을 ‘사물 그 자체’로 노래하지 않는다. 그 사물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만, “나뭇잎이 하나씩 돌아나고, 여럿 모여 살고, 한 개씩 떨어져 사라지는 것 ⇨ 인간 또는 모든 생명의 섭리”로 추상화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나)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위 시에서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자화상(自畫像) **제목**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반복**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감정 표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감정 표현**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감정 표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감정 표현**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서 생각을 전개해 보자.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다 제쳐두라고 했다.)
이탤릭체로 써 놓은 것이 위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네가 스스로 해야 할 생각이다.

- ⇒ 이 시는 화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
- 제목 : '자화상'
→ 자기 모습 그린 것. 그러니까 이 시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네. 어떤 마음이 드는 걸까?
 -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스스로에 대한 미움, 연민, 그리움이 얽힌 복잡한 심정이 느껴진다는 것이로군.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우물 속은 '사나이 =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물 속 = 화자의 깊은 마음속. 자기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없고 그리운)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 있고, 달-구름-하늘-바람-가을은 ...,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마음의 풍경(이상, 희망, 쓸쓸함 등)이 함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보면 되겠네.

⇒ **[정리]** 화자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아 성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미움-연민-그리움의 복잡한 감정을 지닌 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여러 마음속 풍경'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성찰한다.

제목 <자화상>과 <우물 속 한 사나이를 보면서 밭고 가없고 그리운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만 딱 봐도, 이 시의 주제가 '자아 성찰'(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살펴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즉시 알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을 처음 접할 때,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복잡한 생각 하지 마라. 표현법 따위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하나의 시어가 지닌 의미를 다 파악하려고 무리하지 마라. 그냥 큰 주제만 파악하면 된다.

세세한 것은 문제를 풀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때 가서 해석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다. 이때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봐야 한다.

위 시에서 '달 - 구름 - 하늘 - 바람 - 가을'이 각각 무엇을 함축하는지 단번에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원래 상징적 표현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다소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면, '달 - 구름 - 하늘 - 바람 - 가을'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볼 때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함께 있는 것들이므로, <대략 꿈, 희망 따위의 여러 가지 마음의 풍경>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위 시에서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면 다음과 같다.

(다) 그 나무 **제목**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서술부**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서술부**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감정 표현**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서술부**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감정 표현**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감정/태도
표현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서 생각을 전개해 보자.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다 제쳐두라고 했다.)
 이탤릭체로 써 놓은 것이 위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네가 스스로 해야 할 생각이다.

⇒ 이 시는 화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

● 제목 : ‘그 나무’

→ 이 시는 ‘그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네. 어떤 마음일까?

●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 ‘안쓰러움’의 감정을 표현하는군. ‘늦된 나무’(성장이 지체된 나무라는 뜻인 듯)가 큰 나무들 틈바구니 속에 숨어서, 철이 지났는데 꽃명울을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엾고 딱한 마음의 든다는 거군.

→ 이게 틀림없이 ‘나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내용’이겠지?

●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 아니나 다를까, ‘그 나무’에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화자는 지금 ‘헤매고 있는데, 뒤늦은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그 나무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즉, 방황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은 것이지.

●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를 매달까요?’,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지퍼올릴 수 있을까요?’

→ ‘그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매달기를, 가난한 소지를 지퍼올리기를 간절히 바라는군. 그런데, 화자는 ‘그 나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연상하면서 ‘늦깎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 나무가 푸릇한 잎새, 가난한 소지를 매달고 지퍼올리기를 바라는 것’은 곧 ‘화자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

⇒ [정리] 화자는 ‘그 나무’를 우연히 발견하고, ‘늦된 그 나무에 대한 연민과 기대’를 통해 화자 자신의 ‘자기 성찰 & 깨달음을 갈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그 나무’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이 길



고, 복잡해질수록, 더더욱 핵심 내용을 잘 가려내야 한다. ‘잡다구리’와 ‘주요 핵심’을 가려낼 수 있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 가려낸 주요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따뜻한 공감의 태도로 ‘화자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으면 된다.

이제, <시를 읽는 법>을 설명한 이 글을 마무리할 때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곧 ‘시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몇몇 작품에 실제로 적용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내 설명을 잘 따라온 학생들은 지금쯤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 방법론이라는 게 **지극히 간단한 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 시 작품을 해석해나갈 때 그 지극히 간단한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원리’는 복잡해서는 안 된다. 실전에서 복잡한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가능하면, 간단할수록 좋다.) 그 간단한 원리 명제에 어떤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큰 깨달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좋겠다.

- 시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시에서 ‘화자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 제목> <2. 반복> <3. 감정/태도 표현> <4. 서술부>에 주목한다.
-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제쳐둔다. (* 복잡하면 더욱 혼란스럽다)

이 원리, 방법을 여러 낯선 구체적 작품에 적용해낼 수 있으려면, 그 간단한 원리, 방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터득, 체득해가는 훈련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김연아의 ‘트리플-트리플 점프’를 말로 설명하는 거야 뭐가 어렵겠는가! “공중으로 솟구쳐서 세 바퀴 돌고, 착지하는 순간 또 솟구쳐서 다시 세 바퀴 돌고 착지하면 된다.” 그걸 머리로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몸으로 트리플-트리플 점프를 실행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그건 매일매일 지속적인 반복 훈련, 시행착오, 교정 과정이 없다면, 해낼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언어 학습 방법, <이겨놓고 싸우는 법>에서 제시한 <기출 반복 학습>을 실행해가고 있는 학생들은, 기출 지문/작품의 반복 과정에서 이런 원리, 방법에 따라 실제 기출 작품을 스스로 해석해보는 훈련을 통해 이를 깨우치고, 체득해야 한다. <기출 반복 학습>이란 ‘정답 찾아내기’의 무의미한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한번 한번의 반복과정마다 새롭게 깨우치고, 터득하고, 보다 넓어지면서도 깊어져 가야 한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다.

매일 꾸준히 즐기차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언어 영역 학습지침서 <이겨놓고 싸우는 법>과 이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능/모의평가 문제집과 해설집, <마르고 닳도록 시리즈>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랑스러운 학습 성공담도 좋고, 가슴 아픈 실패담도 좋습니다. 칭찬도 좋고, 따끔한 지적도 좋습니다. 질문도 좋고, 고민도 좋습니다. 혹은 해설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체험의 목소리가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madal.co.kr

마리깡뚜



2013학년도 수능 언어를 위한 핸드북

마리깡뚜 싸우는 법

만약, 네가 비약적 상승을 꿈꾼다면,
너에게 익숙한 그 방식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꿈꾸는 목표에 걸맞은 외롭고 힘든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 마리깡뚜 시리즈

이 정도로 충실·풍부·정확한 해설은 은하계 내에서는 없다!

최고의 학습 교재는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교재는 없다.
'평가원 표' 기출 문제들은 언어 학습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한 문제 한 문제를 다른 친구들에게 해설해 줄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정복해내야 한다.



마리깡뚜 (수능 기출 문제집)



마리깡뚜 (수능 기출 해설집)



마리깡뚜 (모의평가 문제집)



마리깡뚜 (모의평가 해설집)